U대회 선수촌 짓는 현대건설 '함바' 운영 않기로

인근 점포·목욕탕, 식당 개조 '붐'

"운영권 주겠다" 거액 요구 소문도 무성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부지) 인근 상가들이 잇따라 '함바형 식당'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시행사인 현대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바'(건설현장 내 식당)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역상권의 '특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사장 내 함바 운영권을 준다며 거액을 요구한다는 소문도 돌아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현대건설과 광주시, 화정주공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 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에 함바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이 사업장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인근 식당업주들이 상가번영회를 결성 "불경기 속에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대들이 대부분 이주해버린 상황에서 공사현장에 함바까지 설치되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함바를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19만4496㎡의 면적에 3726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재건축조합에 약속한 공사기간인 오는 2015년4월까지 35개월 동안 하루평균 1000명이 1인당 6000원짜리 식사 3끼를 먹는 것을 단순 계산할 경우 190억원에 가까운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정주공 인근 90여곳의 상가 가운데 수십곳이 최근 함바형 식당으로 관련 시설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공사기간 동안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함이다.

화정동 한 목욕탕의 경우는 최근 폐업을 하고 식당영업을 준비중이며,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외지인들의 상가 임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현대 선수촌 함바 6월초 입점 확정' 등의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홍보에 나선 식당도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 주변 한 건물. 함바형 식당으로 구조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바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지만 부실한 음식이나 위생상태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는 만큼 위생과 식단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장 내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달라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소문에 따라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장만채 교육감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관련

檢, 광양시청 압수수색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의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과 교육감 재임 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광양시청과 광양 모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5일 오후 광양시청 교육지원 업무 담당 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장 교육감이 지난 2008년~2009년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광양시와 협의했던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와 광양시는 광양 캠퍼스 설립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순천시 등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된 광양 모 기업 대표는 당시 순천대 광양캠퍼스 추진협의회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 광양캠퍼스 설립 등과 관련해 사용했던 대외활동비의 사용처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시작했던 단식을 12일 풀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허위 처방 보험금 부당수령

의사·약사 등 3명 입건

여수경찰은 16일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금을 챙겨온 의사 최모(40)씨, 약사 손모(66)씨, 간호조무사 유모(여·45)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0개월간 여수 문수동에 모 의원을 운영하면서 무료검진을 해주겠다며 간호조무사인 유씨가 알고 지내던 박모(여·32)씨 등 30여 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건강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1000차례에 걸쳐 허위의 처방전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무자격 비만 치료 시술

간호조무사·병원장 검거

무자격 비만치료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등과 이를 방조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6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모 한방병원 코디네이터 김모(여·26)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조모(37)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김씨 등은 병원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여·30)씨에게 병원 기혈치료실에서 지난해 8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비만치료 요법인 카복시 시술을 했으며 조씨는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부실도로 교통 사고 누구 책임?

사망 보상금 지급 놓고 광주시-익산청 법정 공방

1심 "광주시 35%, 익산청 65%"… 모두 불복 항소

"교통사고의 원인이 부실도로 때문이라면 관리자와 설치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

광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광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보상금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1심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광주시와 익산청의 보상금 다툼으로 번진 교통사고는 지난 2009년 3월6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응용교 부근에서 김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정면충돌, 김씨가 사망하면서 일어났다. 김씨의 부모는 새 도로와 구도로가 이어지는 지점에 안내가 미흡했다며 도로를 개설한 익산청에 1억5500만원의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구도로가 직선으로 이어진 것처럼 돼 있으나 실제로는 45도로 꺾여 신도로와 이어지는 잘못된 도로구조 탓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익산청이 김씨의 유족에게 6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익산청은 지난해 1월 도로 진입에 문제가 생긴 것은 관리 소홀 탓이라며 광주시에 6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빛고을 대로와 첨단 북광주IC 일부 구간으로 지난 2008년 개설 당시 광주시와 익산청의 사업구간이 겹치면서 광주시가 중복투자를 우려해 시비 대신 익산청에 국비로 개설할 것을 요청한 구간이다. 익산청은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해 도로를 건설한 만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은 관리 주체인 광주시의 책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익산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실도로는 관리자의 책임도 있다며 광주시 35%(2200만원), 익산청 65%(4200만원)의 책임을 물렸다. 하지만 1심에 불복한 두 기관 모두 사고책임은 상대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측 변호사는 "국가가 도로를 개설했다면 만전을 대비해서 관리 주체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본다"며 "부실도로에 따른 교통사고 책임은 도로를 만든 설치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1일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염병 방역 소독 시범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6일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전염병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생활을 위해 '2012 하계 방역단 발대식'을 갖고 방역소독기 가동 시범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00m 추격 강도 붙잡은 용감한 10대

쌍나팔

○…교도소에서 만난 20대 남성 2명이 새벽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10대 중식당 배달원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16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박모(24)씨 등 2명은 이날 새벽 2시9분께 목포시 상동 모 원룸 앞에서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이모(17)군에게 붙잡혔다는 것.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500m 가량을 추격해 박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이군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 예정.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체포

170억 횡령·1500억 불법대출 혐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 중인 합수단은 임 회장을 지난 15일 밤 10시40분께 서울시내 모처에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170억원의 횡령 및 15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배임)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최근 조사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등 비리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대출과 빼돌린 자금의 구체적인 규모, 비자금 조성 경위 및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임 회장은 외국 선적의 선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격과 장부가격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횡령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 회장이 빼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정·관계 로비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4조9990억원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6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1타경 36075	1	광산구 월계동 756-5 첨단금호타운 102동 10층 1001호 92.390㎡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관리비연체중.2012타경6330[중복]
2011타경 38248	1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861 서라4차아파트 401동 14층 1409호 59.915㎡	아파트	82,000,000 82,000,000	
2012타경 1908	1	화순군 화순읍 대리 121 대광아파트 201동 11층 1103호 48.6㎡	아파트	48,000,000 48,000,000	임차인있음.토지별도등기있음
2012타경 3423	1	남구 봉선2로 96-14, 205동 2층 204호 141.32㎡	아파트	200,000,000 20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1타경 30541	1	남구 주월동 974-34 77.4㎡	대	81,082,000 81,082,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남구 월산동 1047-16 24㎡	대		
		남구 주월동 974-34 1층59.01㎡ 2층48.29㎡ 제시외 통로 등 11㎡	단독주택		
2012타경 1212	1	남구 월산동 197-13 152㎡	대	82,889,200 82,889,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197-13 47.19㎡ 부속건물 4.29㎡[광]제시외 창고 등 18㎡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2타경 974	1	나주시 이창동 718-11 골든빌 에프동 4층 402호 74.725㎡	다세대	77,000,000 77,000,000	임차인있음
2012타경 2024	1	나주시 삼영동 87-7 삼영연립주택 1층 101호 59.43㎡	다세대	25,000,000 2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1타경 24775	2	광산구 쌍암동 688-8 1787㎡ 제시외 파이프조 구조물 33.2㎡	대	1,751,924,000 1,751,924,000	제시외건물포함
2011타경 31414	1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6 2934㎡[분묘소재하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35,208,000 35,208,000	타인소유수목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28883	1	북구 동림동 153-6 상가동 2층 204호 61.780㎡[매각가격에대지사용권포함됨]	근린시설	40,000,000 40,000,000	대지권미등기.건물만매각
2011타경 33540	1	북구 두암동 847-1 119.2㎡	대	106,301,860 106,301,8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동소 847-1 1층67.08㎡[점포] 2층66.18㎡[주택] 부속건물 2.0㎡[변소] 제시외 주택 등 27.3㎡	점포및주택		
2011타경 37245	1	동구 산수동 522-30 216.9㎡	대	201,203,400 201,203,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522-30 1층100.30㎡[음식점] 2층98.70㎡[음식점] 제시외 주방 등 112.8㎡	근린시설		
2012타경 493	1	서구 치평로 116, 5층 511호[치평동,월계수타운] 131.04㎡	근린시설	186,000,000 186,000,000	
2012타경 1564	1	광산구 월계동 897-5 194.9㎡	대	308,003,400 308,003,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897-5 일용품소매점및주택 1층116.15㎡ 2층116.15㎡ 제시외 주방 등 92.5㎡	근린시설 등		
2012타경 2673	1	동구 지산동 520-5 241㎡	대	765,609,810 765,609,810	일괄매각.임차인있음
		동소 520-5 음식점 1층141.5㎡ 2층141.5㎡ 3층141.5㎡ 4층141.5㎡ 5층100.09㎡	근린시설		
[기타]					
2011타경 24348 2012타경 2918 [병합]	1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2156 6263㎡	잡종지	875,901,550 875,901,5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동소 2156 151.36㎡[제조업소] 2734.8㎡[창고] 제시외 차양 등 77.2㎡	제조업소 및창고		
		동소 2116-2 35㎡	도로		
		동소 2156-2 49㎡	도로		
		동소 2442-3 11㎡	도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5. 31.[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6. 7.[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1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광의